印, 고대 불교 사원 유적 발굴

부다가야로 가는 길목서…밀교사원 추정

김민재 객원기자

인도 자르칸드주 하사리바그 지구의 구릉에서 10세기 이전의 고대 불교 사원 유적이 발굴되어 화제다. 지난 2월 25일 인도 언론지 '타임즈 오브 인디아', '인디아 익스프레스'는 유적 발굴과 발굴된 유물들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인도 고고학 조사 연구팀(ASI)은 자르칸드주 하사리바그 지구의 구릉에서 10세기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 불교사원 유적을 발견했다. 이번 발견은 불과 100m 떨어져 있는 고대 불교 법당이 발견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발견 된 것이다.

ASI는 유적지에서 석불 11구를 발굴했다. 이중 6구는 석가모니이며 나머지 5구는 관세음보살의 여성화신인 타라보살로 밝혀졌다. 석불들의 크기는 60~90cm로 팔라왕조의 작풍을 충실하게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

ASI 고고학자 니라즈 쿠마르 미쉬라는 "이 유적은 팔라왕조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곳은 초전법륜지인 사르나트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이자, 부처님의 성도지인 부다가야로 가는 옛 경로에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은 발견이다"고 전했다. 또한 동일 지역에서 힌두교의 최고신중 하나인 쉬바신의 화신 '마헤쉬와리'로 추정되는 신상도 발굴됐다. 발굴팀은 이를 두고 불교와 힌두교가 공존하던 당시의 문화를 보여주는 증거로 보고 있다.

사원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팔라왕조는 8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벵골과 비하르 지역을 통치한 왕조다. 이 왕조는 대규모 승원을 포함한 불교기관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이 지역의 다수 종교인 힌두교 역시 보호했다. 팔라시기의 불상들은 인간의 육체를 섬세한 곡선으로 묘사하고 특히 보관과 목걸이와 같은 장식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ASI측은 "작년 12월에 세 개의 방을 갖춘 법당을 발굴했다. 당시 중앙 법당에는 타라보살상이 봉안되어 있었고, 부속 감실에는 두 개의 여래상이 있었다. 당시 발굴에선 법당과 승원이 합쳐진 정도로 추정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종잡을 수 없었으나, 이번 유적 발견으로 이곳이 후기 대승불교의 분파인 밀교의 중요한 중심지였음이 밝혀졌다"며 이번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적지에서 발굴된 11구의 석불. 6구는 석가모니이며 나머지 5구는 관세음보살의 여성화신인 타라보살이다. 사진출처=인디아 익스프레스

발굴에 참여한 란치대학의 역사학자 D.N.오즈하 박사는 "이번 발견이 이 지역에 불교와 스님들이 도래한 역사와 북인도의 불교 확산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타라보살상이 다수 발견된 것은 이 사원이 6세기부터 11세기까지 인도에서 번성했던 밀교의 중요한 중심지였음을 암시한다"고 전했다. 유적에서 발견된 타라보살상에는 고대 비문이 새겨져 있어 해당 유적에 대한 정보가 더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ASI의 연구원들은 벽돌 벽에 부착된 불상을 떼어내 비하르주 파트나에 있는 ASI의 박물관에서 보존처리를 거칠 계획이다. 이번 발견 소식을 접한 현지인들은 열광했다. ASI는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박물관 건립을 요청했으며 이번 발굴에서 발견된 석불 중 일부를 대중에 공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泰, 온라인 만불절 축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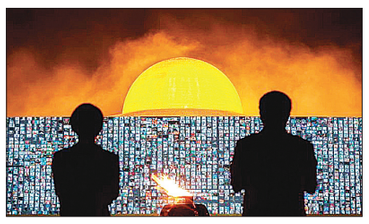
20만 명 이상 온라인으로 참여해

태국을 비롯한 남방불교의 명절 '만불절'을 기념하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불자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모여 화제다. 지난 2월 27일 로이터통신은 태국 불교 신흥 종단인 담마까야의 불교 명절 중 하나인 '만불절'을 기념하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불자가 온라인 화상회를 통해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만불절은 부처님께서 입멸하시기 3개월 전 왕사성 죽림정사에서 계율을 설법하시는데 부처님께서 알리지 않았음에도 1250인의 아라한이 자발적으로 부처님께 찾아와 법문을 들은 기적을 기념하는 날이다. 만불절은 태국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불교 축제로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에서도 기념한다.

태국에서는 이날 사람들이 절에 모여 스님을 청해 설법을 듣고, 이후 손에 촛불을 들고서 법당이나 탑을 3번 돌고서 초 공양 올리는 풍습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직접 참여가 어려워진 불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만불절을 기념하게 됐다.

담마까야 종단의 본산인 왓 쁘라 담마까야 사원에는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위한 280m 길이의 LED 스크린이 사원의 탑 주변에 설치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만불절 행사에 참여한 불자와 왓 쁘라 담마까야 사원 전경. 사진출처=로이터통신

됐다. 탑 안에서 스님들이 빨리어 경전을 암송하는 것으로 시작된 만불절 예불은 스님들이 등불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 절정을 맞이했다. 담마까야 홍보실은 "평소에는 사원에 참석해 등불을 밝히는 불자가 수십만 명에 달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올해는 온라인으로 만불절 행사를 진행했다.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통해 불자과 함께 만불절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번 온라인 만불절 행사에는 전세계의 담마까야 신도 약 2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참석자들은 대부분 태국인이었지만 다른 나라의 불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1천 명의 불자들이 흰 옷을 입고 온라인 참가자들을 대신해 등불을 밝히고 탑돌이를 진행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日, 도쇼다이지 100년만의 포살의식 부활

〈唐招提寺〉

비공개 진행 후 영상공개, 차후 재가자도 참가할 계획

출가자들이 보름에 한번 씩 모여 계율을 점검하고 참회하는 포살(布薩). 일본에서 100여 년간 단절되었던 포살의식이 나라(奈良)에 소재한 사찰, 도쇼다이지(唐招提寺)에서 부활했다. 2월 25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나라방송' 등의 주요 언론들은 이 기쁜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포살회를 부활시킨 도쇼다이지(唐招提寺)는 일본 율종의 총본산으로 8세기 초 중국 당나라의 율사였던 감진화상(鑑真和上)이 율장을 가르치고 비구계를 수계한 이래 계율의 상징으로 법등이 전해온 천년 고찰이다.

도쇼다이지 측은 "포살회는 개산조인 감진화상이 일본에 전한 이래로 각 사찰로 널리 퍼져 중세엔 보편적으로 진행되던 의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근대에 불교가 일시적으로 박해를 받던 시기에 포살회의 맥이 단절되었고 율종의 본산인 도쇼다이지마저 그 맥이 끊기고 말았다.


100여 년 만에 부활한 도쇼다이지의 포살회.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도쇼다이지의 장로 니사야마 묘곤 스님은 "맥이 끊긴 옛 전통 중 중요한 것은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사찰에서 보관중인 중세 포살회의 의궤와 주석서 등을 발굴, 정리했다. 또 교토의 류코쿠 대학과 협업하여 이들 문서들을 현대어로 풀이하고, 의식의 절차를 정립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포살회는 지난 2월 15일 도쇼다이지의 예당(禮堂)에서 봉행됐다. 예당은 감진화상이 전계를 위해 당에서 모셔온 불사리를 모신 전각으로 포살을 부활하는 데 또 의미가 깊다고 사찰측은 전했다. 포살회는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취재진과 신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대중 스님들만으로 1시간 가량 비공개 진행됐다. 그러나 100년만의 부활을 기념하고, 포살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 과정을 특별히 촬영, 20분 가량의 영상으로 편집해 지난 21일 유튜브에 공개했다. 도쇼다이지 측은 "짧은 영상이지만 감진화상이 전한 마음을 이어가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영상을 공개한 의의를 밝혔다.

포살회는 먼저 대중들이 모두 모였는지를 확인하고, 도량을 정화하고 참석한 이들이 손을 씻은 후 상좌(上座)소임을 맡은 스님이 큰 소리로 계목을 읽으며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묘곤 스님은 "100여년 만에 개산조 감진화상이 전한 의식이 다시금 부활되었다는 점에서 대중 모두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는 같은 불교도인 재가신자분들도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한 "끊겼던 것을 다시 부활시켜 후대에 이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 나름이다. 이번에야 말로 끊김없이 이어나가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도쇼다이지 측은 앞으로 년 2회 공식적으로 포살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쇼토쿠 태자 서거 1400주기 특별전

비공개 불상, 새로 발견된 복장유물 등 다채로운 전시

한일 고대불교사의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쇼토쿠 태자(聖德太子)의 서거 1400주기를 기념하는 다양한 선양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나라 국립박물관과 호류지(法隆寺)가 함께 특별전을 개최해 화제다. 2월 26일, 일본의 'NHK 방송', '산케이 신문' 등의 주요 언론들은 특별전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쇼토쿠 태자는 고대 한일 불교사의 중요한 인물로, 일본에서는 불교를 공인하고 최초의 관사(官寺)를 세우고 고구려에서 스님들을 모셔오는 등 불교를 수입하는 데 열심이었다. 또한 스스로 〈법화경〉, 〈승만경〉, 〈유마경〉의 주석서를 쓰고 강의하는 등 교학에도 깊었던 것으로 전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쇼토쿠 태자의 업적에 힘입어 그를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여기는 태자신앙이 중세부터 발전했고 다양한 조각과 회화 등의 유물이 풍부하게 전한다. 호류지는 이러한 유물들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쇼토쿠 태자 선양



특별전의 의의를 설명하는 호류지 주지 쇼가쿠 스님. 사진출처=NHK방송 캡처

사업의 일환으로서 나라박물관과 특별전 '쇼토쿠 태자와 호류지'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평소 비공개인 쇼토쿠 태자 좌상이 선보인다. 이 좌상은 쇼토쿠 태자 서거 500주기를 기념해 조성된 것으로 쇼토쿠 태자가 왕에 오른 모습으로 묘사된 불상이다. 호류지 산문 밖에서 공개되는 것은 27년만이라고 나라박물관은 전했다.

또한 호류지 금당에 봉안되어 있는 국보 약사여래좌상과 수 만 마리의 비단벌레 껍질로 만든 감실인 옥충주자(玉虫厨子)등도 전시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마음이 향기를 내는 책, **법보시 주문**은 02)732-1520 으로 하시면 됩니다.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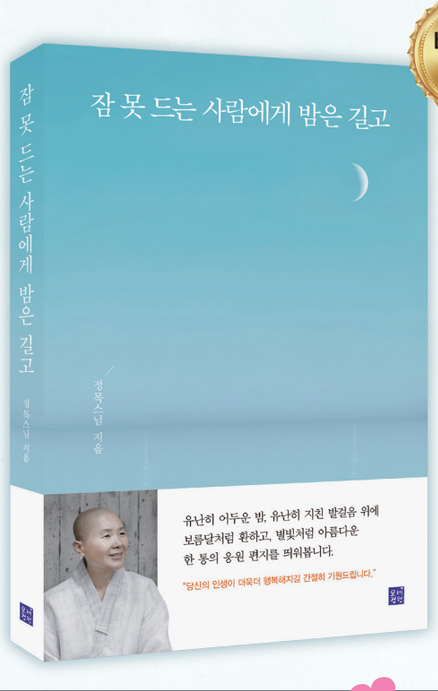
베스트 셀러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12,600원** (배송비 별도)

모네의 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